

☺ 100일 잔치 소감문 ☺

- 김포대화모임 방화김여사 -

안녕하세요~ 방화이선생 엄마 방화김입니다.

GA, 가족모임 <창립 40주년 기념 및 봄연수> 행사의 뜻깊은 자리에서 소감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GA & 가족모임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찍이 사별을 하고 이선생이 8살, 누나가 11살 남매를 키우며 행여 편모 자식이라 손가락질 안 받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행히 끄찍이 보살펴주는 이모네 가족과 조금 되는 아빠의 연금, 저의 직장 생활로 넉넉지는 않지만 궁핍하지는 않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매가 자라면서 크게 속 끊이는 일없이 우애 있고 제 역할을 하며 제때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두었습니다.

이선생이 결혼할 즈음 제가 20여년 직장 생활에 정년을 맞게 되어 혼수 준비로 집을 구하게 될 때 저의 퇴직금과 사돈댁의 협조로 내 집 마련으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하였다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며 뿌듯해하였습니다.

그러던 21년 11월 결혼하고 5년 즈음의 어느 날 이선생이 찾아와 비트코인을 하다가 1억 5천이라는 빛을 지게 되었다고 일부만 변제해 주면 자기가 차근차근 알아서 갚을 수 있다고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애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다는 화제가 떠돌던 때인지라 '빛지는 게 두려워 체크카드만 사용하던 이선생마저도 젊은 객기로 남들 따라 하다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자식 생계에 빛을 떠안고 생활하는 게 안타까워 급한 돈 6천만원만 해달라는 거에 이모가 5천만원을 빌려주게 하여 다달이 100만원씩 갚기로 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상을 찾아가며 생활하였습니다. 이후로 아들 이선생은 가족들을 보면 즐거운 시간 중에도 눈물을 보이며 죄의식에 잠겨있기를 반복... 빛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며 젊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면 된다고 다독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에 알게 되었지만 정신과 상담을 통해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고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도박과 함께 도박빚으로 압박을 받으며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처럼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는가 하였는데 23년 1월 초 이선생이 함께 일하고 있는 처가의 장인어른께서 심각한 일이라며 저와 누나를 만나 뵙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려운 사돈이 무슨 일일까?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이선생이 공황장애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우울증과 불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집 담보로 5억여원의 돈을 대출받았다는 것...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심정으로 사돈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올수 있었는지... 무방비 상태에 이선생이 찾아와 용서를 빌 때, 소리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변제해 줄 때 다시 그러면 너와 나는 인연 끊자는 엄포가 무색하게 도박이라는 무서운 병에 빠진 줄도 모르고 “차라리 죽으라고, 더 이상 너를 안 본다”하며 심한 말을 하고 모든 전화, 카톡, 집 현관 비번까지 차단시켰습니다. 아무 죄 없는 며느리와 손주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간이 며느리와 소통으로 집은 급매로 내놓고 이선생이 타던 차도 팔고 ‘라이스 지킴이’ 관리하며 새로 시작해 보겠다고 소식을 주며 저를 위로해 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과의 소통을 끊고 3개월 후 누나가 이사하는 관계로 가족들과 안 마주칠수 없어 이선생을 보게 되어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고 일상을 찾아가는데 아들 집의 매매와 새로 전세 들어갈 집의 날짜가 안 맞는 관계로 짐은 창고에 맡기고 한 달여간 처갓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을 알아보는 가운데 이선생이 4천만 원을 또 대출받았다는 사실에 며느리도 더 이상 살수 없다며 헤어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 이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옛말에 도박은 온 집안 가산 탕진과 죽어야 끝난다더니 이게 현실이구나!..’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는 연락이 없고 며느리에게서 죽겠다고 특만 남기고 전화가 꺼져있으니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니 연락을 취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도박이 고칠 수 없는 거라면 남은 가족이라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딸은 딸대로 엄마 걱정으로 “엄마 도움이 못되어주어서 미안하다며 나는 이제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둘이서 펍펍 울었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다음날 어린이날이라고 모든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선생은 비를 흠뻑 맞고 초췌한 모습으로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을 열어주니 그 자리에서 울고 불며 “엄마 죽으려고 가양대교를 갔었는데 아이들이 눈에 밟혀 차마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고.. 엄마 도박병을 고치고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 또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미인지라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 죽지도 못한다니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시 시작해 보자” 하고 이선생의 주선으로 경기북부센터 상담 예약과 입원치료가 필요할 시 성모병원을 예약하고 이선생과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상담을 통해 도박 중독증이 진행성 질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며 완치는 없으나 잠재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절망 속에서 미약하나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센터 프로그램을 참석하여 깨우침을 얻고 가족 회복으로 누나와 며느리도 각자 상담을 받고 이선생과 저는 GA모임과 가족모임에 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모임을 참석하여 많은 경험을 들으며 힘과 희망을 얻게 되어 안정감을 찾는 가운데 지난 8월 또다시 재발로 도박이라는 병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이선생이 불쌍하고 가여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선생은 새로운 일자리와 가족과 함께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며 소소한 일상으로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단도박과 함께 잘 견디어내며 지내고 있는 이선생에게 감사하고 100일 잔치에 이어 1주, 2주, 끝없이 가야 할 길을 잘 이겨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김포가족모임의 문을 열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용기를 낼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여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GA선생님들 가족모임의 선생님들 여사님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가정에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길 위대한 힘께 기도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두서없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